

시멘트·콘크리트 관련 주요 뉴스 및 단신



2012년 일본 시멘트 매출 전년대비 4.6% 증가

일본 시멘트업체 15개사의 2012년 시멘트 매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출하(고화재 등 포함)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시멘트신문이 보도했다.

검엽사의 경우 전자재료 등 국제시장에서의 환경악화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시멘트부문은 건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업사는 영업권역이 한정된 일부 메이커의 출하가 침체되었으나 대기업 중심의 합리화가 진행되고 있어 체질은 보다 강화되었으며, 물량증가에 의한 수익개선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레미콘 시장의 회복도 일본 시멘트업계의 수익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도 일본 경제는 작년 말 정권교체 이후 엔화 안정,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일본의 시멘트 수요도 지진복구수요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수요 호조로 2012년도를 상회하는 4,8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시멘트업계는 그동안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사업을 슬림화해왔으며, 물류체제의 안정화 및 생산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시멘트업계의 입장이다. 설비의 고령화로 유지관리비가 증대되고 있어 일본 시멘트업계는 적절한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레미콘업계는 시멘트가격 상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레미콘 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시멘트 가격 현실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도는 시멘트 가격 현실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합리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시멘트신문 7월 22일)

시멘트업계, 친환경산업으로 사업체질 개선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산업으로 꼽히는 시멘트업계가 친환경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 친환경 시멘트 개발은 물론 탄소경영보고서 발간, 친환경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시멘트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산업으로 사업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아세아시멘트는 최근 카본 풋프린트 서울 2013 전시회(Carbon Footprint Seoul 2013)에 저탄소·친환경 시멘트인 '에코멘트'를 예술 작품화해 참여했다. 이 회사는 또 2007년도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지난해 아세아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91만5,231톤이었다. 이는 2011년도 대비 1% 정도 감소한 규모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업계 최초로 '탄소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채광에서 출하에 이르는 시멘트 전 공정의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이 상세히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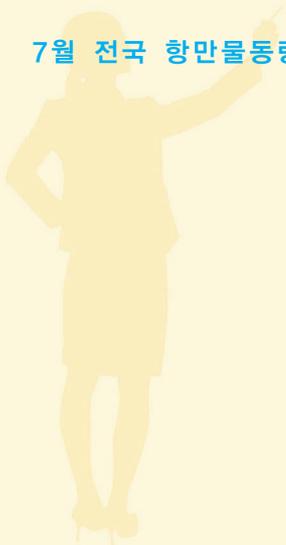
또 탄소관리체제 구축, 폐열발전설비 도입, 바이오매스연료 사용, 저탄소 시멘트 생산 등의 탄소경영 활동을 통한 한일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성과도 실렸다. 한일시멘트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앞두고 주주 및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탄소경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탄소경영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9월 14일)

유연탄 과세설에 시멘트업계 ‘긴장’



정부가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멘트를 비롯한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건설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시멘트나 철근 등의 생산 원가 상승 압박까지 겹치는 이중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언론 매체는 앞 다퉈 정부가 전력대란과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화력발전의 주원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나 유연탄 등에 대한 과세 및 유류세 인하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라고 짙막하게 논평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도,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똥이 떨어진 곳은 유연탄 소비가 많은 관련업체다. 대표적인 곳이 시멘트업계다. 석회석을 구워 생산하는 시멘트는 연료의 85% 이상이 유연탄이다. 여기에 세금이 붙으면 생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유연탄 국제 시세, 물류비(경유값) 등의 기존 원가 상승 요인에 덧붙여 유연탄 과세가 새로운 압박요인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피나는 제조원가 절감 노력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유연탄에 세금을 매기면 풀 수 없는 또 다른 난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연탄은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 성장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언제든 금등할 소지가 있다”며 “여기에 세금까지 붙이면 업계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9월 5일)

7월 전국 향만물동량, 전년대비 2.8% 감소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향만물동량이 총 1억1,109만톤으로 전년동기의 1억1,433만톤에 비해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향만별로 보면, 부산항과 광양항은 석유류, 전기기기, 기계류 및 석유정제품 등 수출입물량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3%, 0.7% 증가하였다. 반면, 인천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및 포항항 등은 석유가스, 원유, 석유정제품, 철광석 등의 수출입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9.9%, 6.2%, 2.2%, 18%의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7월 주요 품목별 물동량 (단위: 천톤, %)

품목별	유류	광석	유연탄	철재	기계류	자동차	화공품	모래	시멘트	무연탄	기타
총물동량	31,633	9,544	9,846	7,231	7,973	5,990	4,946	3,921	3,064	1,172	25,779
전년동기 대비	-4.3	-13.6	-3.9	-19.0	5.2	17.4	-3.8	-9.1	-4.7	84.8	2.7

자료 : 해양수산부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 자동차 및 무연탄은 수출입 물량 증가에 힘입어 각각 전년동기대비 5.2%, 17.4%, 84.8% 증가한 반면 유류, 광석 및 철재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3%, 13.6%, 19.6% 감소하였으며, 시멘트도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했다.

삼성물산, 초고강도 콘크리트 상용화 눈앞

삼성물산이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삼성물산은 자사의 '200MPa(메가파스칼) 슈퍼 콘크리트 실용화 기술'이 최근 열린 '2012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수여식'에서 4만9,000개 국책과제 중 '우수성과 100선'에 뽑혔다고 9월 11일 밝혔다.

200MPa는 현장에서 직접 타설 가능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최대치로 삼성물산이 2010년 완공한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80MPa의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메가파스칼은 콘크리트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단위면적 cm²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의미한다. 이 기업은 이번 성과로 1000m 이상 초고층 빌딩 시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물산 측은 200MPa 슈퍼 콘크리트는 강도가 탁월할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유동성도 강화돼 지상에서 필요한 높이까지 압송하기가 한층 수월해 초고층 건물 건설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시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보이는 구조적 문제점인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으로 인한 고온 갈라짐 현상도 동시에 극복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술은 지난 3월 인도의 초고층 빌딩 월리(Worli)타워 현장에서 시범적용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 9월 11일)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해 국토교통 R&D 성과 중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 6개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했다고 건설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선정·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토교통분야 R&D 성과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분산형 고속열차(HEMU-430X) 기술과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 전통한옥 대비 건축비 60% 절감이 가능한 신한옥 구축 기술, 노후 건축물 성능향상 및 재사용 기술, 차량안전서비스용 WAVE 통신기술, 분산공유형 건설기술 연구기반 구축·운영 기술 등이다. (건설경제 8월 9일)

동부건설, 공사비 20% 절감 콘크리트 말뚝 신기술 개발

동부건설이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콘크리트 말뚝 특허 시공기술을 선보였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동부건설은 최근 롯데건설, 파일웍스와 공동으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스마트파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스마트파일은 매입말뚝을 시공할 때 사용해왔던 기존의 콘크리트 파일 하단부에 짧은 길이의 강관을 부착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동부건설에 따르면 현재 시공 중인 한국개발연구원 신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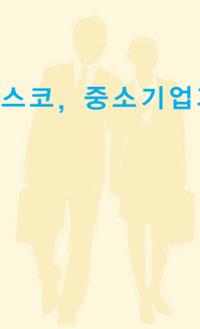




등의 현장에 스마트파일 기술을 적용한 결과 공사비 10~20%, 공기 25~40%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기술은 국토교통부 주관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기술사업화 지원) 과제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신기술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특허 취득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확대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7월 25일)

포스코, 중소기업과 콘크리트보드용 새 강종 개발



포스코가 중소기업과 손잡고 내식성과 내염분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보드용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아시아뉴스통신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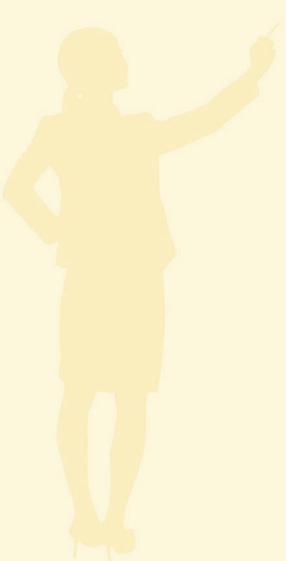
포스코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용 보드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온 삼정산업의 신강종 니즈를 파악해 다년간의 공동 연구와 설계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스틸보드를 대체할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신규 강종을 초도 공급하고 최근 양산에 돌입했다.

콘크리트 보드는 고강도 벽돌 및 블록 생산을 위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드에 올려놓고 양생하기 때문에 높은 하중을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고른 표면 품질을 갖추기 위해 부드러운 표면과 우수한 평탄도를 확보해야 한다. 보드 자체적인 내마모성과 내식성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콘크리트 블록용 보드시장은 초기투자비가 저렴한 플라스틱 및 나무보드가 80% 이상을 차지해왔으며 스틸보드는 부식에 약해 주요시장인 중동지역에서 약세를 보여왔다.

‘POS1006MA’로 명명된 이번 신강종은 기존 일반 스틸보드와 비교해 무게는 30% 가벼우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하다. 내식성과 내염분성을 각각 30% 향상시켜 고염분 바람이 불고 온도차가 크면서 다습한 중동지역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어 향후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7월 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기료 25%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면 5년 이내 전기요금에 25%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국민일보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나라별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된다.

7월 4일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 보고서와 전력업계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 석탄 발전을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LNG값이 석탄에 비해 비싸므로 이 전환 과정에서 연료비가 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석탄의 경우 kWh당 발전단가가 48.74원인데 비해 LNG는 140.97원이다. 전력부문에서 우리가 줄여야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400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산하면 연료비로 13조4,000억원(2012년 기준)을 더 써야 한다.

이는 지난해 전력시장 총 거래금액(42조5,000억원)의 31.5%다. 발전원가가 전기요금의 약 80%이므로 늘어나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25.2%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약 30%를 감축해야 하지만 감축이 가능한 양은 부족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7월 4일)